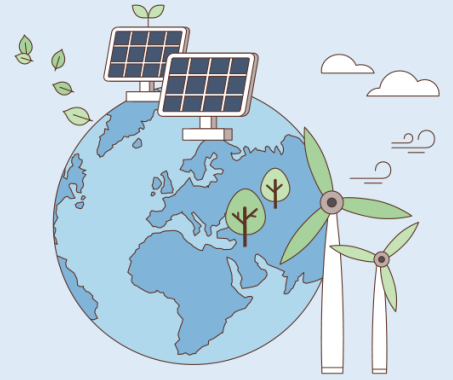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 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탄소중립-ESG 경영 미래성장전략 모색”...2021 포스코포럼 개최 *경향신문*
- DL건설, '대세'인 ESG채권 흥행도 실패한 이유 *서울경제*
- 노루페인트, ESG 열풍 타고 친환경 페인트 강자로 *매거진한경*
- 식품업계, ESG경영도 '협업' 바람 *리얼푸드*
- 지난 50년 동안 자연재해...사망↓ 경제적 손실↑ *아이뉴스24*
- 대한항공 은퇴 항공기, 친환경 상품으로 재탄생 *핀포인트뉴스*
- 자전거도 탄소 배출?...중고거래용 탄소저감 계산기 나와 *머니투데이*
- LG에너지솔루션, 협력회사 대상 'RE100'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 대체투자에도 거센 ESG 바람...평가·적용은 숙제 *이데일리*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남양유업 재매각? 장기전?...“홍원식 회장 ‘경영권 연장’될 듯” *국민일보*
- 유한킴벌리, 사회·환경혁신 이끌 스타트업 육성 *이코노미리뷰*
- 금감원 이재용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 판단, 금융위 최종심사 남아 *비즈니스포스트*
- 인터넷 증권사에서 '10조 공룡'으로... 수직 지배구조 갖춘 미래에셋그룹 *조선비즈*
-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에 상반기 8억4400만원 보수 지급... *글로벌이코노믹*
- IS동서-E&F PE, 글로벌 환경기업에 수처리 업체 매각 완료 *매일경제*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ESG 여행' 민낯 *시사위크*
- 한글과컴퓨터 신사업 미는 김연수, 아버지 김상철 투자DNA 그대로 *비즈니스포스트*
- 하이브, 게임 자회사 흡수 '박지원 색깔' 입히기 *더벨*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SKT, ESG 분야 스타트업 지원...사회문제해결 머리 맞댄다 *뉴스1*
- KCC, ESG 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뉴스시*
- 철강 산업재해 사망, 절반은 피할 수 있었다 *한겨레*
- '택배대리점 점주 사망' 대리점聯-노조 갈등 비화 *국민일보*
-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이투데이*
- 금호석유화학, 환경·안전 중심 사업장 조성 집중 *더벨*
- 法, 맘스터치 가맹점주 가처분 인용...사측 "재판 통해 최종 확인" *메트로신문*
- "휴대전화 반입 안 되는데, 성희롱 피해 입증하라?" *매일노동뉴스*
- 늘어가는 대한민국, '디지털 양극화' 관철나 *이코노미스트*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국민연금 "올해 국내채권 ESG 적용 범위 확대" *이데일리*
- 진승호 KIC 사장 "그린 파트너십 구축해 글로벌과 ESG 공동투자" *뉴스시*
- 조용병 "포스트 코로나 중심엔 ESG-디지털" *헤럴드경제*
- KDB산업은행, 펀드 위탁운용사 ESG 투자 평가한다 *연합뉴스*
- 'ESG 열풍' 이끄는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 *동아일보*
- ESG 공시 의무화 "세계적 흐름" VS "기업에 과도한 부담" *이데일리*
- 5대 금융지주 환경+경제 융합 전략 *그린포스트코리아*
- KKR 회장 "ESG, 전 세계 자본 배분 방식의 중대한 변화" *파이낸셜뉴스*
- 'ESG 기술경영' 선포한 가스기술공사 *이투뉴스*

ESG FOCUS UPDATES

온실가스 배출부채 현황과 재무적 영향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09.01

E

- 2021년부터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21~25년)이 시작되면서 배출량 감축에 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음
- 배출부채란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기업들이 미리 회계에 충당부채로 반영한 부채 항목을 의미함
-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초과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될 예상 지출을 합산하여 측정함.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수치화한 지표로 볼 수 있음
- 지난 2차 계획기간(18~20년) 동안의 국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업 수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큰 기업의 지속적인 감소가 확인됨
- 특히 2020년보다 평균 배출부채가 높았던 2018년에 비해서도 배출부채가 큰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과 배출부채 규모가 증가한 기업보다 감소한 기업의 수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올해부터 3차 계획(21년~25년)에 진입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부담 확대가 예상됨
- 3차 계획기간의 '유상할당량 확대', '100% 무상할당 업종 감소'의 효과만 단순 반영하여 계산하였을 때, 전부 무상할당 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 2021년 배출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평균 배출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대되어, 추가적 재무부담 수준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함
- 따라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계획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이 직면할 온실가스 배출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투자자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에 속하지 않았다면 3차 계획기간 진입에 따른 배출부채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온실가스 배출권 리스크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과 연계하여 기업의 배출부채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ESG 추진 전략

- 대한상공회의소 21.08.30

S

- 중소기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직까지는 ESG를 재무성과와 상충되거나 본업과는 거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인력 등 자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임
-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는 달리 ESG 경영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특성을 보유함.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이 높은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특수성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1) 일반적으로 기업 오너가 경영인의 역할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 방향이 전적으로 오너 개인에게 의지되며, 대기업의 ESG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인 거버넌스(G) 요소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임
- 2) 중소기업은 현금흐름과 단기 실적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의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 비용 또는 투자가 요구될 시 ESG 경영에 소요되는 자원 투입을 지연 또는 유보하기 쉬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ESG를 통한 중장기 관점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규제비용이나 영업손실 등 단기적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음
- 3) 국내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7%로 기업 규모 고려시 업무 분배가 비체계적이며 유동적이고, 겸직이 많아 ESG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역할 분배가 어려움
- 이에 중소기업의 ESG 추진 가이드는 ESG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관리 방향을 안내하고, 해당 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중점 사항에 대해 ESG 전문성이 낮은 일반 근로자가 이해하기 명확한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함
- ESG 관리지표에 대한 일반적 우선순위를 통해 지표별 관리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음. ESG 관리지표는 중소기업의 대응 시급성과 용이성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중소기업별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고용관행 개선, 환경경영체계 구축 → 유해물질 배출/폐기 관리, 온실가스 배출저감 → 제품 안전 및 품질,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친환경 기술 기회 확대)
-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우선순위와 접근법에 기반하여 자사의 ESG 관리 방향을 수립하고, 각 영역에서 공급망 ESG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자사의 현황을 파악해야 함
- 이러한 프로세스로 ESG 현황 진단과 실천 과제를 확인한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현황 및 성과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 연속성 있는 ESG 성과관리와 규제당국의 데이터 요구에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음
- ESG 경영체계를 구축한 중소기업은 자사의 ESG 경영 추진 의지와 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정부 또는 대기업 주도의 ESG 금융 및 역량 지원 등 관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더 큰 ESG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08.31

E

- EU는 7월 14일 'Fit for 55' 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 등 5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발표함
- 미국 민주당도 7월 19일 4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아연, 시멘트)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을 발의함.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발표로 미루어 볼 때, EU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정책 효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취약해진 재정 여력 강화 차원에서도 EU와 미국에서 촉발된 탄소국경세 부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여타 선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
-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EU 입법안에 명시된 5개 품목 외에 추가 적용이 예상되고(5개), 미국 발의안에 언급된 품목(4개)까지 포함한 총 9개 품목임(철강, 경유, 알루미늄, 펄프·제지, 시멘트, 무기화합물, 비료, 납·아연·주석, 가죽의류)
- 9개 품목의 전체 탄소국경세 규모는 4,260.8억원(수출액의 4.4% 수준)으로 추정됨. 철강에 대한 탄소국경세(4,032.9억원)가 대부분(95%)을 차지하며, 철강 이외 품목은 228억원에 불과함
- 대美 탄소국경세(2,193.3억원)가 EU(1,888.1억원)를 상회하고 있어, 미국 탄소국경세 법안 발표시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의 대美 수출 규모가 4.1조원으로 유럽(3.5조원) 대비 6천억원 가량 많은 것이 주요 원인임
- EU 집행위가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종의 탄소국경세 규모는 174.7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임
- 주요기업 분석 결과 포스코는 대美EU 합산 수출액(2.1조원)이 현대제철(2.9조원)보다 작지만 탄소집약도가 높아 탄소국경세 규모(2,021억원)가 현대제철의 1.2배임
- 정유 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과 단위생산액 당 탄소배출량이 평균 3.74톤으로 유사한 SK계열 정유 3사와 에스오일은 탄소국경세 규모도 유사하게 나타남
-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입장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이 낮은 기업일수록 가격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짐을 의미함. 특히 탄소국경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철강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배출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됨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 사례

- KOTRA 21.08.30

E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6개국 31개 기업의 ESG 대응 사례를 조사 후, 4가지 대응 유형으로 분류함
- 1) 투자자·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 강화: 아마존은 기후변화 대응기구인 글로벌 옵티미즘과 공동으로 '4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후서약(Climat Pledge) 캠페인을 발족하고 자사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참여 벤더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장함
- 아마존은 또한 Climate Pledge 웹사이트를 런칭함. 제3의 친환경제품 인증기관과 협력 및 자체적인 지속가능성 인증을 통해, 해당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웹사이트임
- 일본의 세븐&아이 홀딩스는 미국 편의점 점유율 3위인 '스피드 웨이(주유 서비스를 겸하는 미 편의점 체인)' 인수에 따라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50년까지 일본 내 점포 운영에 따른 실질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설정함. 태양광 패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플라스틱 봉투 유료화(20년 7월) 및 바이오매스 배합 등을 시행함. 특히 '21년 2분기부터 임원 급여에 CO2 감축량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음(CO2 배출량 2% 감소시 5% 인상, 2% 이상 증가시 10% 인하)
- 2) 기존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기회 발굴: 영국의 오일메이저 BP는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30년까지 원유, 가스 생산량 40% 감축 계획을 발표함
- 이를 위해 매년 50억 달러를 저탄소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움. 바이오 에너지와 수소에 투자해 전기차 충전기 7,500대를 '30년까지 7만대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Chargemaster 등 충전 업체 인수확대)
- 프랑스의 까르푸는 '더 많이', '더 싸게'의 전통적 대형마트 모델에서 탈피하여, '신선함', '로컬', '유기농' 키워드 중심 모델로 전환하고 있음
- 3) ESG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자본으로 활용: 캐나다의 카본큐어 테크놀로지는 포집 CO2를 콘크리트 제조 공정에 넣어 콘크리트 강도를 제고하고 대기에서 CO2를 영구 감축하고 있음. 현재까지 1,100만달러 유치 중임
- 경력 단절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바라프 그룹은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집중하는 Phitrust로부터 '07년 70만 유로 투자 유치에 성공함. 이후 2차 투자로 420만 유로 유치에도 성공함
- 4) (금융권) 기업고객 대상 ESG 경영 인센티브 제공: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등 ESG 성과 우수 기업 대상 우대금리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임. 일부 지정사업(석탄화력 에너지 생산 등)에 대해서는 대출자체를 배제하는 금융사도 있음
- HSBC는 지속가능성 실적 목표를 미리 정하고, 목표 도달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Umwelt bank는 UN SDG 17개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로 지원대상을 한정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17 지구촌 협력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 유엔 자본개발기금(UNCDF)의 SDG 기여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Societal Development Score" 산정
- 글로벌 중대형주 스코어 상위 200개 종목으로 구성
- 영업활동 내 UN지정 최빈개도국에 대한 최소한의 익스포저가 없는 경우 유니버스에서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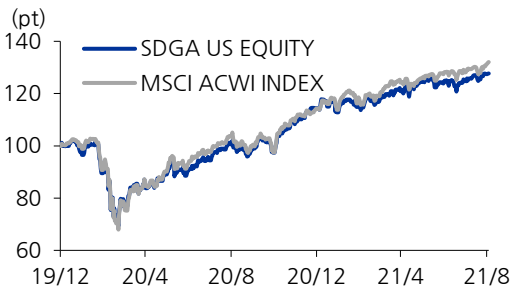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SDGA US EQUITY
상장일	2018-09-24
운용사명	Impact Shares
총보수율(%)	0.76
기초지수	Morningstar Societal Development Index
가중 방식	Market Cap
주당 가격(달러)	28.37
보유종목 수	137
시가총액(백만달러)	5.7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3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0.8	1.5	2.5	11.6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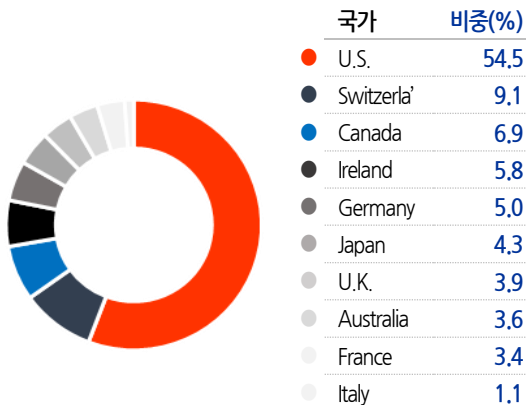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3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NESN SW	네슬레	355,057	5.4
JPM US	제이피모간체이스	476,581	5.1
BAC US	뱅크오브아메리카	345,432	4.7
CSCO US	Cisco Systems	250,408	3.7
CRM US	세일즈포스닷컴	261,471	3.6
GOOGL US	알파벳	1,923,882	3.5
NOVN SW	노바티스	222,176	3.3
INTC US	인텔	217,090	3.2
PEP US	펩시코	217,116	3.2
ACN US	액센츄어	218,048	3.2
합계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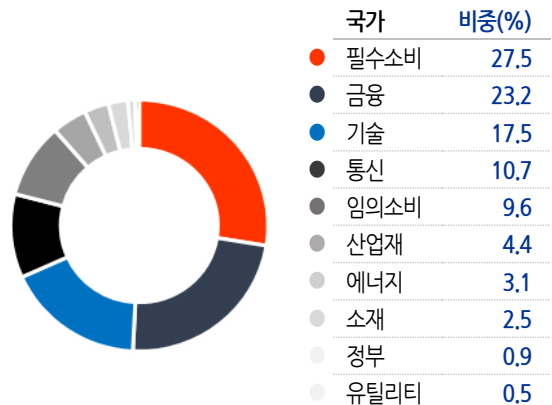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3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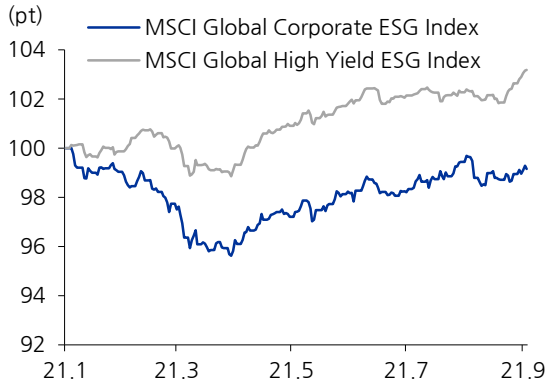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9월 3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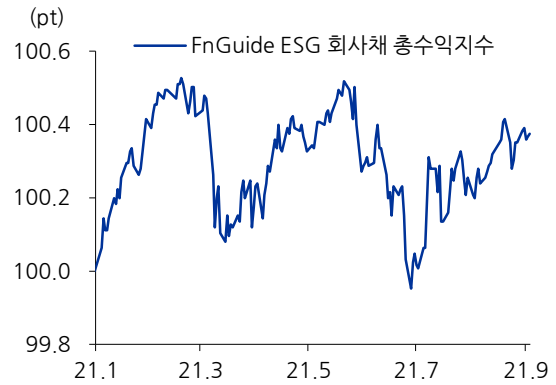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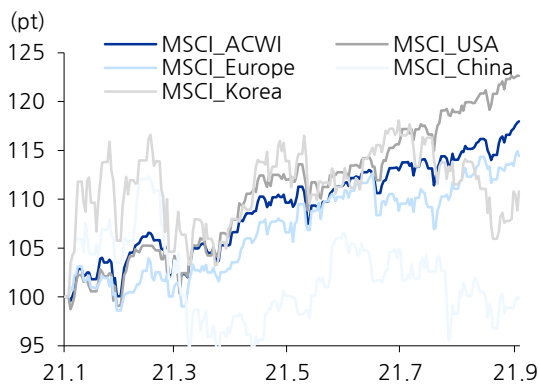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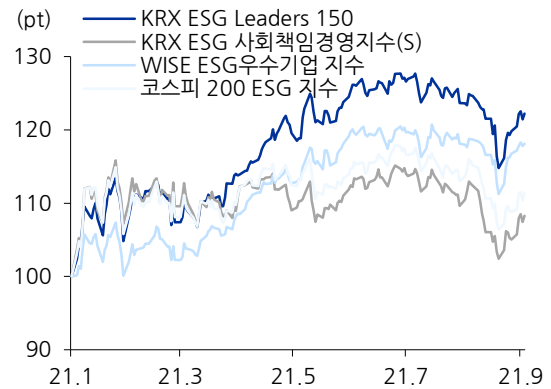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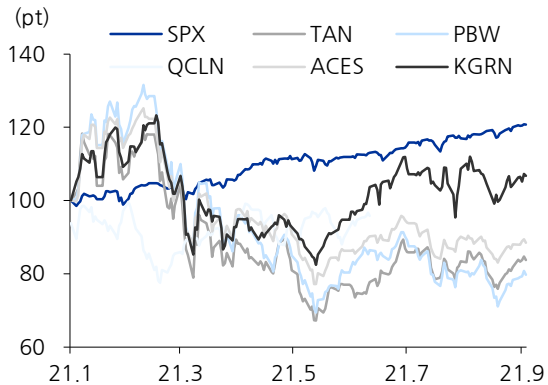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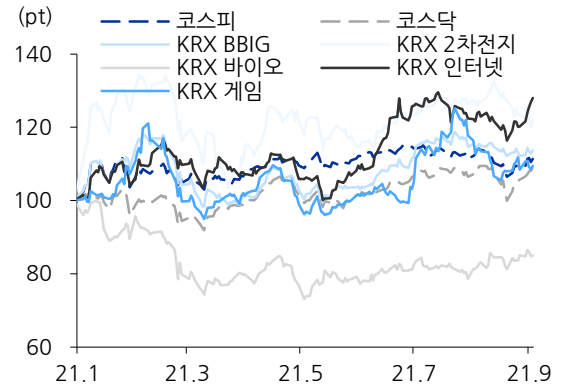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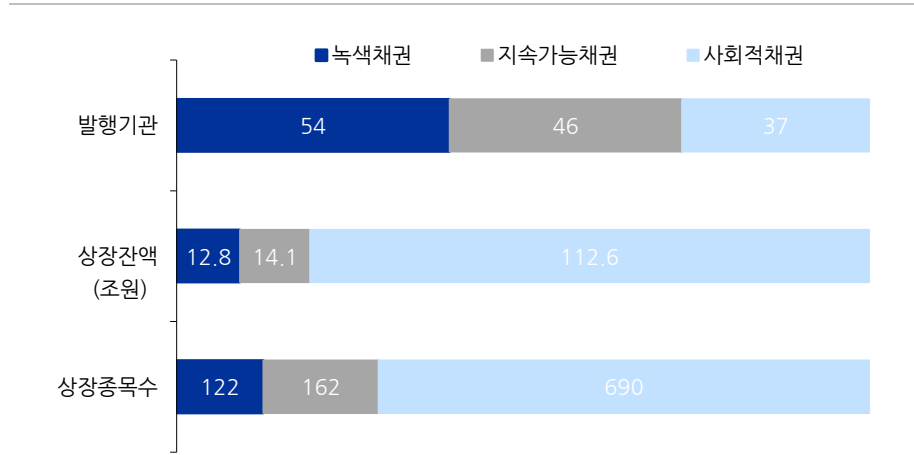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19(1-1)(사)	2021/09/02	2.78000	104,521
지속가능채권	전북은행 25-8이 1갑-31(번)(지)	2021/09/01	1.14000	100,000

자료: SRIf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f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2%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8%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1.06.30 기준)